



What's Up, OITA!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인회,유학생 OB,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오이타의 "지금"을 전해 드립니다

레이와 7년 (2025년) 11월 11일~12일까지 오이타현 지사가 미국을 방문해 글로벌 인재 육성 등 인적 교류 촉진과 관광객 유치 및 현 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한 지역홍보 등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서해안 교류 촉진 임무~

〈주요 내용〉

- 스탠퍼드 대학 방문
- 북캘리포니아 일본상공회의소 방문
- 제트로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방문
- 샌프란시스코 시장 방문
- 공식 리셉션 [Experience Oita]



스탠퍼드 대학 국제 이문화
교육 프로그램 (SPICE)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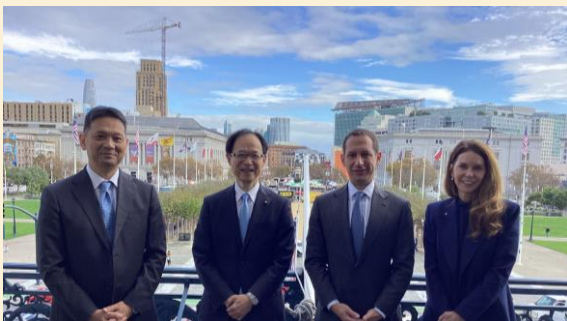
스탠퍼드 대학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연구소 방문



북캘리포니아 일본상공회의소 방문



제트로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방문



샌프란시스코 시장 방문



「 Experience Oita 」



유명한 오이타 현립 미술관 [OPAM] 의 광고에 관심이 가기도 했고, 일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겠다! 싶어 "키라메쿠 (빛나는) 일본 미술 1300년의 보물"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신토와 불교의 공존

일반적으로 신토와 불교의 요소들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같은 장소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신토의 가마 (미코시) 내부에 불교의 법화경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에 무척 놀랐습니다. 불보살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믿는 불교, 자연과 조상, 다양한 신들을 믿는 신토의 사상이 서로 어우러져 있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법화경 장지문 그림]

象嵌南蛮人文鏡

상감 남만인 문양 등자



[확대 그림]
보물선의 뱃머리가 보이나요?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이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눈박이 요괴가 맹인 비파 법사에게 무섭지!라며 겁을 줄 때, 비파 법사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 더 무섭겠지요"라며 답한 일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아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가르침일까요. 현대에도 통하는 이 가르침이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소중히 지켜져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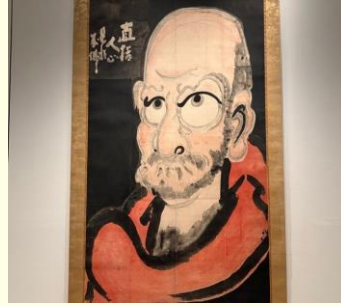


<전시회 포스터>



달마의 정체는?!

지금까지 저는 달마를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존재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엄격하면서도 진지한 스님이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인간적인 면과 함께 과장되게 표현된 표정의 달마의 강력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달마의 눈을 그릴 때 담긴 굳센 각오가 다시 한 번 느껴졌습니다.



[설마 스님일 줄이야!]



[강력한 눈빛에 압도되는!]

각오의 칼

왼쪽 아래에 그려진 승려는, 어느 날 수행 중이던 달마의 제자가 되고자 했지만 그는 전혀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팔을 잘라버렸고, 비로소 제자 입문을 허락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퍼포먼스로 자르는 시늉만 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팔을 잘랐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달마의 수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 제자가 되겠다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만큼 달마가 엄격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승려의 표정은 마치 "반드시 내 의지를 보여주고 말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마

승려

매력적인 일상의 표현



[도시락 들고 나들이]



[다케타의 자연 속 캠핑]



[다다미가 있는 집 안에 말을 쉬게 해주는?!]

일상의 사소한 풍경에서도 마음이 울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사람은 동물과 자연,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매료되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일상도 미술관의 하나의 그림처럼 표현될 수 있을까요?

일본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예로부터 이어져 온 외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작품과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어 기쁩습니다. 역사와 예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번 전시처럼 우리의 일상도 열정과 매력이 담긴 예술로 가득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부텔 로사]

전시를 보고 나서 "일본에는 정말 다양한 전통 미술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조 불상이나 검, 회화, 도자기 등을 통해 역사의 깊이가 끝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예술에 조예가 없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린 알리시애나]

News from Hiji Town

히지정 소식

히지마치
홈페이지



히지정과 대만 신주시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히지정은 레이와 7년(2025년) 7월 4일, 대만 신주시와의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7명의 방문단이 신주시를 방문하여 관광·문화·산업·교육의 네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기로 양 측이 서로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도시를 방문하는 등, 교류를 더욱 깊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News from Kokonoe Town

고코노에정 소식

고코노에마치
홈페이지



웃음과 도전으로 세계를 더욱 가깝게 몽골 국제교류 사업 2025.8.2~8.7



몽골의 광활한 자연속의 감동



현지 어린이들과의 교류

참가자들은 각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에 임했으며, 다양한 배움과 자극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일부 참가자의 소감을 소개합니다.

- 「저는 일본 음식 요리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음식을 통해 국경을 넘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요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 「몽골의 평균 수명은 60대~70대로, 일본보다 짧고 예방의학의 개념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공공의료와 예방의학이 발달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 「문화의 차이를 몸소 경험하고 지리적·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이어져온 문화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를 지키고 국가로서 번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 유학생들과의 홈스테이 사업 2025.9.18~20

읍내의 초·중학교에 다니는 아동과 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 교류하면서, 상대에게 잘 전하려는 노력과 듣는 자세, 배려와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유학생의 발표



홈스테이 가정과
지역 축제 참가

(홈스테이 가정의 소감 한마디)

“아이들이 자신들이 아는 단어를 충동원해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해볼거야! 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넓다는 사실에 감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충분히 즐거웠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또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상대에게 맞추는 태도를 배웠다.”

News from Kusu Town

구스정 소식

구스정
홈페이지



인공위성을 활용한 브랜드 쌀 「구스 텐구노 카가야키」 출시

올해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한 벼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 향상을 목표로 레이와 4년도 (2022년) 부터 개시되었습니다.

품종은 "히토메보레"로, "쌀 맛 품질 순위" 에서 4년간 연속으로 특A로 뽑힌 품종입니다. 이 품종을 활용하여, 인공위성 영상 등으로 벼의 생육 상태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벼 관리와 수확 시기 판단 등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수확한 쌀 중 1등급 쌀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쌀만을 엄선하고, 2mm 체로 선별한 쌀이 바로 "구스 텐구노 카가야키" 입니다.

풍부한 향과 단맛을 담은, 알갱이가 굵은 맛있는 쌀로 탄생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판매는 구스 고코노에 직거래 장터에서 이뤄지며, 판매 가격은 2키로 3,980엔 (세금포함) 입니다.



구스 고코노에 직거래 장터
홈페이지



News from Yufu City

유후시 소식

유후인 · 쇼나이 · 하사마마치
공식 여행 사이트



고향세(후루사토 납세)로 유후시에서 보내는 밤! 유후로 여행 갈까요?

'유후인 온천' 을 비롯해, 시내의 5개 온천이 '유후인 온천향' 으로서 국민 보양 온천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숙소에 머무르며 사계절마다 달라지는 유후의 바람을 느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매력 발견 스탬프 랠리 in 유후 제2탄 진행중 ! ~2026.2.15까지

유후시 내 5개 지역의 온천시설을 대상으로 한 스탬프 랠리 진행 중입니다.
모은 스탬프 개수에 따라 추첨으로 50명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유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스탬프를 모아보세요.



「유노하나」란?



영국 국제교류원
부텔 로사

(사진 제공: 유노 사토)



오이타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념품 가게에서 "유노하나" 화장품을 보고 "이게 뭐지?"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묘반 온천을 찾아가 보니, "유노하나 움집" 이 올해로 창업 300주년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움집에서 천연 원료를 수작업으로 직접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유노하나" 라고 불리는 천연 입욕제는, 에도시대에 "묘반" 이라고 불려, 도쿠가와 막부의 직할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통적인 제조방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며, 국가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제공: 유노 사토)



견학용 유노하나 움집



"유노하나"가 이런 거였어!



유노하나 화장품

유노하나란?

"유노하나"는, 지면에서 약 30cm 정도 아래에 가득 찬 온천의 수증기와 청점토의 화학반응으로 이뤄진 결정입니다. 움집에서 하루에 겨우 1mm정도 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묘반 온천에서는 온천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활용해 만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결정은 목욕물에 넣으면 몸이 편안해지는 효과는 물론, 어깨 결림이나 근육통에도 효과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노하나"를 활용한 화장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온천욕을 하고 난 후와 같이 윤기 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붕의 짚

묘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줄지어 있는 "유노하나 움집" 은 상당히 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300채나 되던 움집이 현재는 15채 정도로 줄었지만, 이 묘반의 풍경은 문화적 경관으로 소중히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지붕은 지역의 밀짚이나 대나무, 나무만을 사용해 손으로 만들며, 증기의 영향 때문에 3년 마다 장인이 이엉을 새로 엮는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큰 움집은 약 4미터 높이며, 내부 최고 온도는 최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장인의 솜씨로 만든 유노하나 움집

묘반의 유노하나 움집을 방문해, 손수 만들어지는 천연 화장품의 가치와 전통을 지켜 온 장인의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꼭 한번 직접 방문해서 그 매력을 경험해 보세요 ♪





중국국제교류원
진한위



야바케이에 처음 가게 되어서 "야바하쿠" 라는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덤지도 춥지도 않은 상쾌한 초가를 날씨에 신선한 공기를 힘껏 들이 마신 뒤 후~하며 내쉬니 마음까지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단풍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며 갔는데, 여기저기에 조금씩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바케이의 풍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덧붙여, 나카쓰역에서 나서자마자 곧바로 눈에 /만엔 지폐가 들어왔는데요! 야바케이가 있는 나카쓰시는 바로 지폐의 주인공 후쿠자와 유키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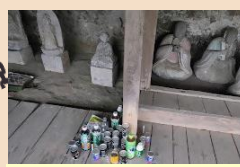
투어는 아오노도몬, 경수봉, 텐닌바시 식사술 잡고 길 건너기와 구니사키 탑이 있는 후루라칸 탐방으로 이어지는 코스였습니다.

아오노도몬 (靑の洞門)이란?

에도시대, 아라세이 독이 만들어지면서 야마구니 강의 물이 막혀, 히다 ·아오 지구 지역에서 강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통행인들은 경수봉의 높은 암벽에 만들어진 식사술을 안전줄 삼아 건너지야 하는 매우 위험한 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경수봉 (競秀峰)은, 야바케이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승지입니다. 그 풍경은 히다 쪽에서 바라보면 이치노미네, 니노미네, 산노미네를 비롯해 에비스암, 기멘암, 다이코쿠암, 묘켄암, 토노암, 쓰리가네암, 진노암, 하치오지암 등,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봉우리와 기암군에 약 1km에 걸쳐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 몇 곳을 식사술을 잡고 직접 올라가 보았습니다



지장보살에 주는 커피? ㅋㅋ



여러 나라를 순례하던 중 야바케이를 찾은 젠카이 승려는, 위험한 절벽에서 많은 사람들과 말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교호 20년 (1735년)부터 직접 암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젠카이 승려는 탁발로 모은 시주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석들을 고공했고, 그들과 함께 오로지 정과 망치만을 사용하여 굴을 뚫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흐른 메이와 원년(1764년), 총길이 342m (터널 부분은 144m)에 달하는 동문을 완성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아오"라는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오노도몬" 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암벽을 혼자서 파낸다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을 30년이나 이어온 젠카이 승려. 같은 풍경이여도 사무실에서 7시간만 일해도 지쳐버리는 저와는 달리, 그가 바라본 야바케이의 풍경은 분명 더 아름다웠지 않았을까요?

아오노도몬 동굴을 지나서, 경수봉 길을 따라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시대극 영화에 자주 등장할 법한 동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며 동굴에서 잠시 쉬었다가, 동굴마다 모여져 있는 지장보살에게 합장하고 다시 걷음을 옮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구간이었지만, 당시의 험난함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며 지금의 도몬 동굴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산에 둘러싸인 올리브 요새

Olive Garden

구니사키시 구니사키 큐리브 가든



한국국제교류원
안수영

큐리브의 Q는 'Quality', 그리고 규슈 구니사키의 'Q'라고 한다.

바다를 마주하고 산등성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구니사키 단연 그 자체!



WHY 구니사키?

구니사키시는 세토 내해와 접한 반도로 연중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온화하며 일조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후 조건이 올리브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오이타현에는 올리브를 국내에서 재배해,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농원이 있다.

오이타 공항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일본 최대 규모(후쿠오카 페이페이 돔 5개 정도)를 자랑하는 올리브 농원, 구니사키 큐리브 가든을 방문해 보았다. 때마침 올리브 수확 시기였기 때문에 수확, 선별, 압착의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요새처럼 산등성이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농원의 바로 앞에는, 세토 내해의 푸르른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중동이나 유럽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올리브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Harvest



Sorting



Pressing



4

올리브 수확 시기는 9월말부터 11월까지로, 매년 단 2개월동안 진행된다.

오전에는 ①수확과 ②선별 작업이, 이어서 오후에는 ③압착 공정을 거쳐 ④최고급 올리브유가 생산된다.



Olive tree



Best Spot

5월 중순에는 연한 노란빛의 올리브 꽃을 감상할 수 있고, 수확시기에는 수확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앞으로는 관광농원으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농원 견학 투어 (예약 필수)

요금 : 500엔부터

일시 : 평일 · 주말 공휴일 9시~4시 개시

시간 : 약 1시간

정원 : 1명에서 최대 45명 정도

주소 : 구니사키시 구니사키마치 안고쿠지 2797-3

문의 : 0978-73-2255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즐거운 경험이었다.

올리브 재배 과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배웠다. 올리브나무 사이를 걸으니 저절로 황홀한 기분이 들었다. 추천 사진 명소!





국보 우스키 석불

일본에는 역사가 있는 불상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교 신자이시기도 해서 우스키 석불을 한 번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스키 석불은 암벽에 새겨진 61체의 불상으로,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에는 가이드 봉사자분께서 안내해 주시며 역사와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스키 석불 스탬프



호키 석불 제 2군

이곳에서 여래·보살·명왕·천부의 위계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석불은 동쪽을 향해 있어, 참배자가 서쪽을 향해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절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키 석불 제 1군

색색으로 화려한 지장보살들이 있었고 가운데의 지장 보살은 열 명의 왕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또한, 원문이나 경전을 넣어 두었던 구멍도 남아 있었습니다.



산노산 석불

이곳에서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한 돌부처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크고 몸이 작기 때문에 다른 석불과 달리 소박하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후루조노 석불

특히 대일여래가 인상에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두가 떨어져 나가, 1993년에 머리가 원래 위치로 복원되었습니다. 관을 쓴 아주 드문 여래로, 눈빛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린 대신이 되어보았습니다! (ㅋㅋ)

가이드분 덕분에 즐겁게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하시게 된다면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9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렇게 상태가 좋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스키 센베이 설탕 조청 바르기 체험

우스키 명물인 우스키 센베이 설탕 조청 바르기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센베이에 생강이 들어간 설탕 조청을 플라스틱 붓으로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장인은 하루에 약 1000개를 바른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겨우 5장만 발랐지만, 예상보다 어려워서, 바르기가 끝나갈 즈음에는 손이 아파왔습니다.



생강 설탕 조청을 바르기 전 센베이



특별한 상자에 넣어 완성!



미지의 세계로!

영국국제교류원 부텔 로사



최근에 검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검도와는 전혀 인연이 없어서 긴장한 채 도장에 들어갔는데, 먼저 보고 놀란 것은 검도복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사람들이 평소 옷차림에서 그대로 호면을 착용하자마자 마치 사무라이처럼 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기합을 지르며 발을 내딛을 때 나는 "쿵!"하는 소리도 굉장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어른들과 함께 어울려 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6살 남자아이가 "머리!" 하고 기합을 넣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런 자신감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새 그 아이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매번 도장에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스스로를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야 해" 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는 도장 밖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준비 완료!



박력 넘치는 아우라



머리!



잘 모를 때에는 물어보자

중국국제교류원 진한위



일본에서 처음으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의 가을은 늘 짧아서, 흑서가 지나고 드디어 산뜻하게 밖에 나가볼까 하면 항상 다음 날 갑자기 추워지곤 합니다. 오이타는 올해 10월 중순까지 반팔을 입을 정도였지만, 가을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단풍의 색채가 아쉬웠던 10월이었지만, 한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이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나카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역을 나와 헤매고 있을 때, "어디 가니?"라며 한 할머니께서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 주시면서 "모를 때는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 7년차. "모르면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 는 말을 계속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말은 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감



도착!



가자! (차창에서)

From our Reporters

국제교류원 소식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며

한국국제교류원 안수영



요즘 들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

아버지께서 오이타에 사는 나를 보기 위해 일본에 오셨을 때, 함께 오이타현의 코코노에마치와 분고오노시를 방문했다.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익숙해져버려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풍경과 아버지의 존재가 새삼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해외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일이 더 이상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바뀐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지금 하는 일도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때 더 큰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아름다운 오이타의 자연



아버지와의 멋진 추억을



당연함→감사함



기대했던 영화

미국국제교류원 린 엘리시아나



저는 평소에 영화관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영화표가 비싸기도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보는 편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전부터 기대해 온 영화여서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나소흑전기2: 우리가 원하는 미래]이며, 2019년 공개작의 후속편입니다. 어린 검은 고양이 요정 '샤오헤이'가 강하고 믿음직한 인간 '무젠'을 만나, 인간과 요정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서의 삶을 배워나가는 중국의 판타지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지브리 작품이나 중국 판타지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중국어 원작 음성으로도, 일본어 더빙으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으로 일본에서 영화를 두 번 봤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엔딩 크레딧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사람이 바로 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좌석은 편안했지만 등받이를 기울일 수 없었던 것에도 놀랐습니다.

뉴욕의 영화관은 낡은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등받이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영화 굿즈 코너가 있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의 영화관은 굿즈보다는 영화만 보고 나오는 느낌이 강합니다. 상영 중인 영화에 맞춘 한정 콜라보 간식과 음료가 있는 것도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매진이라 주문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영화관은 만석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서, 외국 영화가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오이타에 외국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단골이 되고 싶습니다.



티켓만 들었는데도 벌써 들뜨는 기분



What's Up, OITA!



가 드리는 공지

국제교류원을 파견합니다!

국제정책과에서는 **국제교류원 (CIR)**을 강사로 파견하여 각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모습을 즐겁게 배워보실래요? **파견가능한 국제교류원: 영국, 미국, 중국, 한국**

개요

- 대상 오이타 현 내 학교 · 지역단체 · 공민관 등
-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상담 가능)
- 내용 국제교류원들의 출신 국가의 문화 · 관광 · 음식 · 놀이 등을 소개!
- 비용 파견비용 무료! (교통비 및 재료비는 의뢰측 부담)

신청방법

- ① 우선은 전화로 상담!
- ② 일정과 내용을 확인 한 후, 한 달 전까지 신청서 제출
- ③ 국제교류원과 메일 등으로 사전 조율
- ④ 당일 방문한 국제 교류원과 즐겁게 배워봅시다!

주의사항

파견일시와 내용 등에 따라,
파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국제교류원의 파견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의 활동을 전 세계에 소개해보지 않으시겠어요 ?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
현인회 활동(친목회), 유학생 OB의 근황 등을 기다립니다!
(양식 자유)

[기사제공 / 문의]

오이타현청 국제정책과 담당 : 후지카와, 나카야마

[메일] a10140@pref.oita.lg.jp

모집 중!

